財務諸表의 번역

金　英　晴

<차　례>

Ⅰ. 序　言
Ⅱ. 財務諸表 번역의 必要性
Ⅲ. 번역 方法論
Ⅳ. 換率變動損益의 本質
Ⅴ. 結　語

Ⅰ. 序　言

이 論文의 目的은 國際的인 財務報告에 있어서 外貨로 表示된 財務諸表를 번역할 때에 발생하는 몇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려는데 있다.[1]

오늘날 國際的인 企業活動의 漸增하는 趨勢와 더불어 최근에 들어와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多國籍企業의 經營活動은 必然的으로 國際的인 財務報告의 必要性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國際的인 財務報告란 一國에 所在한 特定企業이 他國에 거주하는 利害關係者들에 대하여 당해 企業의 經營成果나 財政狀態를 報告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國際的인 財務報告는 國際的으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財務諸表가 먼저 報告對象國家의 言語와 通貨로 적절히 번역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財務諸表를 번역하는 것은 단순히 一國의 言語를 他國의 그것으로 번역하는 사정과는 다르다. 特定한 體系의 會計槪念과 會計基準에 따라 作成된 財務諸表를 他國의 言語와 금액으로 번역할 때는 원래의 財務諸表에 內在하는 會計槪念에 어떠한 變化가 따르게 된다. 물론 外國에 거주하는 利害關係者에 대하여 그들에게 친숙한 言語와 금액으로 財務諸表를 번역함으로써 그것을 용이하게 解得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단순한 번역도 있다. 그러나 財務諸表의 번역을 취급할 때는 어디까지나 會計槪念上의 次元에서 번역方法論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論議될 것이다.

筆者：慶北大學校 經商大學 助敎授

1) 財務諸表를 번역한다고 하였으나 번역의 대상을 財務諸表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計定이나 試算表 등을 번역할 때도 있고 財務諸表 자체를 바로 번역할 때도 있을 것이다.

첫째, 國際的인 財務報告의 特殊性과 번역의 現實的인 必要性을 제기하고

둘째, 여러가지 번역方法을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한가지 번역方法이 모든 目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이며

셋째, 傳統的인 번역方法이 어떠한 이유에서 非現實的인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새로운 번역方法과 이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換率의 變動으로 인하여 번역에서 발생하는 利得 또는 損失의 本質과 그 처리법을 검토한다.

Ⅱ. 財務請表 번역의 필요성

오늘날 大規模 企業의 國際的인 經營活動은 國際的인 財務報告의 必要性을 낳게 되었다.

國際的인 財務報告의 現實的인 必要性은 먼저 國際的인 經營活動의 增大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先進 諸國의 大企業들은 多數國에 子會社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純利益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子會社로부터 稼得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企業集團은 國際的인 經營活動의 적절한 統制手段으로서 多數國에 散在한 子會社들로부터 신속한 會計情報를 入手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漸增하는 國際間의 投資活動은 또한 會計情報가 國家間에 신속히 傳達되어야 할 必要性을 力說하게 된다. 大規模 集團은 外國의 投資家들을 위하여 當該企業의 株式을 數個國語로 인쇄하여 發行하고 있고 또 그들이 發行한 株式이 世界 도처의 주요 證券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財務報告가 國際的인 무대로 확장되어야 할 必要性은 또한 自明해 진다.

셋째, 私企業의 有價證券投資와는 달리 오늘날 國際的인 相互依存關係에서 살고 있는 各國 政府는 國際機構로서 設立된 諸 機關을 통하여 相互間에 公共의 需要를 創出하고 있다.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나 歐洲共同市場은 이러한 實例로서 이들은 各 地域 加盟國間에 生產要素를 移動시키고 各國의 租稅制度를 調整하는 등 各國間의 經濟協力 關係를 유지하려고 하고있다. 各國의 會計情報는 이러한 國際的인 協力關係를 유지하는데 基礎的인 資料에서 또한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國際的인 財務報告의 必要性은 그 밖에도 여러가지 側面에서 강조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前述한 첫번째의 사정이다. 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corporation)은 多數國에 出資者를 가지고 多數國에서 生產·販賣活動을 直接展開하며 多數國 政府의 統制를 받고 있는 企業이다. 그것은 戰後 各國의 經濟協力과 海外市場의 擴張, 그리고 貿易 및 金融에 대한 障壁의 除去와 直接投資의 擴大를 通하여 이들 諸 動因의 必然的인 歸結로써 登場하게된 새로운 企業形態이다. 그 存立目的은 世界에 散在한 企業의 各種 要素들을 규합하고 經營秘法(managerial know-how), 發達된 技術, 分散된 生產施設, 그리고 調

和된 販賣와 金融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보려는데 있는 것이다[2].

多國籍企業에 反對되는 形態로서의 內國 企業과 多國籍企業과의 本質的인 差異는 그 事業政策에 있는 것이다. 前者는 國內市場에 目標를 두고 있으며 國內의 企業活動을 補充하기 위하여 때로는 輸出入活動을 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後者는 多數國에 株主를 가지고 多數國에서 生產·販賣活動을 展開하며 국경선으로 분리된 여러 市場에 位置하되, 株式所有에 의하여 산만하게 連結된 內國企業의 集積體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的인 單一實體로서 母企業에 의하여 긴밀한 統制를 받고 있는 企業集團이다. 多國籍企業의 이와 같은 本質的 特性에서 보건대 多國籍企業의 會計機能도 그것이 國家的 境界를 넘어서서 多數國의 利害關係者의 이해충돌을 調整하여야 하는 새로운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이다. 國多籍企業의 經營活動과 直接·間接으로 關係를 맺고 있는 多數國의 利害關係者들에 대하여 이들에게 共通的인 意味를 부여할 수 있는 公正하고도 타당한 會計處理와 신속한 會計情報의 提供은 오늘날 多國籍企業이 直面하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부담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國際的으로 共通된 通貨單位는 存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多數國에 散在한 子會社는 우선 그들이 所在하고 있는 國家의 通貨로 計定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럴지라도 多國籍企業의 經營本部에 있는 最高經營者는 國際的인 事業을 計劃하고 統制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關係企業 全體로서의 財務諸表를 一通貨로 作成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子會社의 諸 計定을 母會社 所在國의 言語와 金額으로 번역하는 것이 필수적인 要件이 된다. 그리고 또 多國籍企業의 報告目的이 아닌 다른 目的에서도 特定企業의 財務諸表가 前述한 會計情報의 國際的인 移動의 必要性에 直面할 때는 그것이 他國의 言語와 金額으로 容易하게 번역되야 할 것이다.

번역의 必要性에 관한 細部的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역〈Translation〉이라는 用語에 관하여 확실한 意味를 음미하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것 같다. 外貨로 表示된 計定을 취급하는 傳統的인 文獻에서는 하나의 通貨金額을 다른 通貨로 表示할 때 〈conversion〉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用語는 확실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conversion〉이란 하나의 通貨를 다른 通貨와 現實的으로 交換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Translation〉이란 計定上에 表示된 一國의 通貨를 他國의 通貨로 再表示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번역이다. 이때는 現實的인 通貨의 交換이 일어나지 않으며 資金의 移動이나 計定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去來도 발생한 것이 아니다. 計定上에 表示된 通貨金額을 一定한 換率을 적용하여 他國의 通貨로 번역하는 과정은 마치 言語를 번역하는 方法과 유사하다.[3] 즉 特定한 文法, syntax를 가진 一國

2) J. N. Behrman, Some Pattern in the Rise of Multinatonal Enterprise, 金賛鎭 譯 149面

3) G.G. Mueller, International Accounting, 1967. p.176.

의 言語가 다른 文法, syntax 등에 의존하여 他國의 言語로 번역되는 것과 같다.

計定上의 金額을 번역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먼저 外國에 所在한 支店의 經營活動을 報告하기 위하여 外貨로 表示된 計定의 번역이 必要하다. 企業을 全體로서 하나의 實體라고 볼 때 支店이란 그 自體의 個別的인 存在性을 缺하고 있다. 母店과 支店은 密接히 관련되어 있는 全體의 一構成部分이므로 兩者中 어느 하나의 計定을 그 自體로서 獨立하여 보는 것은 아무런 意味가 없다. 支店活動이란 母店에 의하여 치밀하게 計劃되며 統制를 받고 있는 것이다. 母店은 수시로 支店에의 投資를 評價하고 支店의 經營活動을 판단하며 또한 支店活動을 指揮하게 된다. 母店이 이와 같이 支店의 活動을 評價하려고 할 때나 또는 全體的인 經營成果를 판단하기 위하여 母店 자신의 計定과 支店의 그것을 結合시키려고 할 때는 支店의 計定을 母店의 國內通貨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多國籍企業에 있어서 海外 子會社의 經營活動을 報告하려 할 때 計定上의 外貨金額이 번역되어야 한다. 子會社는 一般的으로 母會社와는 다른 別個의 法的實體(legal entity)이다. 子會社는 보통 자신의 獨立된 會計記錄을 유지하고 母會社와는 別個의 財務諸表를 作成하고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母會社는 계속하여 子會社에 대한 投資를 評價하고 또 子會社 經營成果를 母會社의 그것과 比較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母會社 經營者의 統制機能은 子會社의 會計情報를 利用하지 않고서는 또 그러한 情報가 母會社의 그것과 同一한 通貨單位로 作成되지 않는 限 불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要請에서 子會社 計定이 번역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數個의 企業이 法的으로는 獨立性을 가지나 經濟的으로는 單一實體로서 國際的인 經營活動을 긴밀하게 展開하고 있는 多國籍企業에 있어서는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가 企業全體로서의 綜合的인 經營成績과 財政狀態를 表示하는 有用한 手段이 된다. 聯結財務諸表는 個別財務諸表만으로는 分明히 할 수 없는 會計情報를 企業外部의 利害關係者에게 提供하여 주고 또한 經營本部의 管理活動에 이용될 수 있는 有用한 財務情報를 提供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하기 위하여는 먼저 外國 子會社의 諸計定이 적절한 損率에 따라 번역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目的으로 財務諸表를 번역할 때가 있다. 예컨대 外國에 있는 獨立된 企業을 買收하려 하거나 國家를 달리하는 企業間에 持分 pooling이 計劃될 때도 당해 企業의 財務諸表를 번역하여야 할 것이며 大株主 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債權者가 企業所在國 以外의 國家에 있을 때도 이들에 대한 財務報告의 目的으로 財務諸表를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Ⅲ. 번역 方法論

外貨로 表示된 計定金額이나 試算表 또는 財務諸表를 번역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초에 計定記錄을 할 때 그러한 會計記錄의 기초가 되는 會計槪念과 會計基準이다.

오늘날 國際的으로 統一된 會計基準이란 存在하지 아니한다. 國際的인 觀點에서 보건대 各國의 會計槪念 乃至 會計 基準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各國의 會計가 처하고 있는 企業環境의 歷史的 背景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歷史的으로 比較的 安定된 物價水準을 유지하고 있던 국가에서는 歷史的 原價槪念이 우세하고 항상 고질적인 인프레의 壓力下에서 企業의 實質資本을 유지하는데 주력하여 왔던 국가에서는 代置原價(replacement cost) 會計槪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會計槪念이 이와 같을진대, 會計實務는 國際的인 次元에서 보건대 會計槪念上의 차이보다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各國間에 統一된 會計基準이 存在하지 아니한다는 이와 같은 사실은 多數國의 利害關係者에게 共通된 意味를 부여하는 財務報告가 不可能해진다는 結論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各國의 會計基準을 統一化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一次的인 接近方法이다. 그러나 會計基準의 統一化는 貿易實務에서 信用狀統一規則을 制定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會計는 各國의 環境에 따라 試行錯誤의 過程을 거쳐 그 自體의 固有한 槪念을 歷史的으로 定立하여 왔고 또 그러한 槪念들은 적어도 當該國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體系의 財務諸表는 그 自體의 國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會計基準의 劃一的인 統一化는 위험한 것이다. 財務諸表의 國籍이란 그것이 기초로 하고 있는 特定한 體系의 會計基準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財務諸表가 그 實體가 되는 기초적인 會計資料를 어떠한 單一體系의 會計基準에 의거하고 있을 때 그것은 다른 財務諸表와는 區別이 되는 그 自體의 個性과 國籍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外貨로 表示된 計定 또는 財務諸表를 他國의 言語와 金額으로 번역할 때 이러한 財務諸表의 國籍을 인정하고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國籍을 변경하는 方式으로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會計資料의 번역에서 核心문제라고 할만한 것이다.

二次大戰을 고비로 하여 그 이전의 國際會計는 外貨로 表示된 去來金額을 國內通貨로 換算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外國事業에 관한 會計는 엄격히 國內의 會計構造안에서 이루어졌고 財務報告도 國內에 限定될 뿐이었다. 財務諸表의 國籍이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었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漸增하는 多國籍企業의 經營

活動은 國際會計문제를 단순히 外貨의 換算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문제로 범위를 擴大시키고 있다. 즉 國際的인 投資活動이나 永續的인 實體로서의 海外 子會社의 설치 그리고 世界的인 販路의 擴大 등은 國際的인 觀點에서 會計와 財務報告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多國籍企業은 國內에 限하여 財務報告를 하는 것이 아니라 特定한 國籍을 가지고 있는 財務諸表를 그것과는 다른 國籍의 會計가 通用되는 지역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換言하면 特定한 會計槪念이나 會計基準에 기초를 두고 있는 財務諸表나 會計資料가 그것과는 다른 會計槪念 會計基準이 通用되고 있는 지역에서 公開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計定金額이나 財務諸表를 번역할 때도 그것이 기초로 하고 있는 國籍을 前提로 하는 번역方法과 國籍을 변경하는 번역方法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번역方法을 擇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번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會社의 聯結目的이냐 또는 獨立된 企業의 단순한 情報提供目的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特別한 事由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財務諸表의 國籍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이다. 번역과정에서 財務諸表의 國籍을,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환경적 要因에서 形成된 會計基準을 무시하고 一國籍의 財務諸表를 다른 國籍의 그것으로 改造하여 보고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財務諸表에 表示된 觀點을 變質시키게 되고 또 그러한 財務諸表의 個性을 格下시키게 된다. 그 결과 會計情報를 誤導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國籍을 그대로 인정하여 번역한다면 또 한편으로 一國籍의 財務諸表가 他國의 讀者들에게 때로는 混亂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모순을 調和시키는 일이 바로 오늘날의 國際會計의 課題이기도 하다.

앞에서 外貨로 表示된 計定金額 또는 財務諸表등을 번역하는 方法은 그러한 會計資料의 國籍이 번역으로 말미암아 변경되느냐 여부에 따라 두가지 方法 즉 國籍變更을 가져오는 번역方法과 그렇지 아니한 번역方法으로 分類되었다. 여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번역하지 않는 方法까지——이것도 方法이라면—— 追加하여 세가지 번역方法이 있다고 하여 두자.

國籍을 變更하는 번역方法이라 함은 번역하고자 하는 각각의 計定項目에 대하여 어떠한 項目은 歷史的 換率(historical rate)을 적용하여 번역함으로써 당해 항목의 歷史的 原價를 항상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한편 餘他의 項目에 대하여는 經常換率(current rate)을 적용하는 方法을 말한다. 歷史的 換率에 의한 번역方法은 예컨대 母會社가 外國 子會社의 財務諸表를 聯結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諸 計定을 貨幣性項目(monetary items)과 非貨幣性項目(non-monetary items)[4]으로 區分하고 前者에 대하여는 經常換率을 後者에 대하여

4)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AICPA, APB Statement. No. 3, "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 1969. 를 참조할 것

는 歷史的 換率을 適用하여 번역한다. 貨幣性項目이란現金·現金請求權 및 負債와 같이 확정된 貨幣額으로 表示된 項目을 말하고 非貨幣性項目이란 확정된 貨幣額으로 表示되지 않는 모든 項目을 의미한다. 예컨대 建物·機械와 같은 固定資產과 原材料·商品·製品 등과 같은 在庫資產이 이에 속한다. 이 方法에 의하면 諸計定이 번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會計構造로부터 다른 會計構造로 變形된다. 왜냐하면 特定項目의 번역에 있어서 歷史的 換率을 적용한다는 것 自體가 歷史的 會計槪念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歷史的 換率을 적용하는 번역方法은 본래 會計槪念上의 次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번역과정에서 會計的 조정을 가하는 어떠한 과정에 적절한 것이다.」[5]

歷史的 換率에 의한 번역方法은 母會社와 子會社의 財務諸表를 聯結하거나 母店과 支店의 그것을 合併하려 하는데 이 主된 目的이 있다. 그 밖에도 이 方法은 子會社 또는 支店의 經營活動을 計劃하고 統制하는 經營管理上의 目的에 符合하고 또 각국간에 國際投資 또는 國際收支에 관한 統計目的으로도 有用하게 사용될 수 있다.

外貨로 表示된 計定이나 財務諸表를 國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번역하는 方法은 모든 計定項目에 대하여 經常換率을 적용하여 번역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會計槪念上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단지 表現의 媒介를 변화시킬 따름이며 마치 소설이나 연설문을 하나의 言語에서 다른 言語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번역후에도 원래의 計定속에 포함된 會計槪念 自體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다. 이 方法은 무엇보다도 海外 投資家에 대한 情報目的으로 獨立된 企業의 計定을 번역할 때 적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外國에서 財務諸表를 이용하는 讀者가 그에게 친숙한 言語로 計定을 읽는 능력이나 또 그에게 익숙한 通貨單位로 計定金額을 읽는 능력 이상의 것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번역方法은 外貨로 表示된 計定 또는 財務諸表를 전혀 번역하지 아니하는 方法이다. 번역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目的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方法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高度로 不安定한 通貨에서 高度로 安定된 通貨로 計定 등을 번역 하려할 때는 오히려 번역하지 않는 것이 좋다. 通貨의 相對的인 不安定性 때문에 換率의 급격한 그리고 중대한 變化가 있을 때는 이러한 通貨로 기록된 計定은 安定된 通貨로 설사 번역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번역의 결과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經營者의 意思決定의 오류나 誤判이 이러한 번역의 결과에서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격심한 인프레下에 있는 子會社의 在庫資產을 歷史的 換率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價格政策에 적절한 指針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번역해서는 안될 通貨의 不安定性의 정도를 어떻게 判別하는가에 관해서는 한가지로

5) G.G.Mueller, op. cit., p. 196.

말할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重要性의 原則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母會社가 子會社의 計定을 번역하지 못할 때는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적절한 결론이다. 어떠한 通貨가 번역결과를 無用하게 할 정도로 극히 不安定하다면 買務諸表는 聯結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外換의 移替에 어떠한 制限이 가해지고 있거나 換率의 격심한 變動이 계속될 때 또는 母子會社間에 自由로운 資金移動이 不可能할 때는 그러한 狀況에 처한 母子會社는 財務諸表를 聯結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번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財務諸表를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경우는 一國의 獨立企業이 相對的으로 比較가능한 經濟發展段階에 있고 또 比較가능한 通貨사정을 가지고 있는 他國의 投資家들에게 순수한 정보제공목적으로 財務諸表를 公表할 때이다. 그리고 國際的인 視野를 가지고 오랜 경험이 있는 유능한 경영자는 企業內部의 財務報告를 번역없이 活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가지 번역 方法은 任意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與件에서 각기 다른 目的으로 그 중의 어느 하나가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가지 번역方法이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든 與件에서 그리고 그러한 번역이 기여하게 되는 모든 目的에 대해서 다같이 적절하다는 傳統的인 見解는 명백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安定된 通貨에서 安定된 다른 通貨로 計定을 번역하는 것과 高度로 不安定한 通貨에서 安定된 通貨로 번역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輸出 또는 輸入去來에 관련된 計定의 번역이나 外貨의 換算은 繼續企業으로서 外國에 설립된 子會社의 計定을 번역하는 것과는 성질이 또 다르다. 왜냐하면 輸出의 경우에 輸出로 인하여 稼得한 外貨는 그 당시의 換率로 換算되어 計定上에 기록되거나 또는 現實的으로 國內通貨와 交換되어 버린다. 그러나 外國 子會社는 당해 기업에 投下된 資金을 母會社 所在國의 通貨로 交換할 것을 前提로 하지 않고 이를 恒久的으로 사용할 것을 前提로 한다. 심지어는 外國 子會社가 稼得한 純利益을 모두 再投資하는 경우에는 母會社에 送金되어 오는 配當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본다면 外國子會社의 計定번역과 단순한 輸出入에 관련된 計定의 번역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한가지 번역方法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업이 처한 환경과 현실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컨대 번역의 목적이 財務諸表의 聯結에 있고 母會社가 歷史的 原價會計槪念으로 計定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번역대상 항목의 一部에 대하여 歷史的 換率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獨立된 企業이 外國의 投資家들에게 會計情報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財務諸表를 번역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經常

換率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결론이 여러가지 會計方法中에서 임의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이다. 예컨대 減價償却에 있어서 遞減殘額法(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method)과 年數合計法(sum of the years-digits depreciation method)은 임의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兩者는 유사한 사정에 적용될 수 있고 또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번역方法의 선택을 번역에 관련된 企業現實과 번역의 終局的인 目的에 依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傳統的인 번역方法에 의하면[6]

1. 流動資產(期末在庫와 先給費用을 포함한다)과 流動負債는 期末에 通用하는 換率을 적용한다.

2. 固定資產은 당해 資產이 個別的으로 取得된 당시에 通用하던 換率을 적용한다.

3. 固定負債는 당해 負債가 起債된 때의 換率을 적용한다.

4. 期初在庫는 前年度末에 通用되던 換率을 적용한다. 이것은 前年度에서 보면 期末在庫이고 당해年度에서 보면 期初在庫가 되므로 두개의 연속하는 財務諸表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表示되어야 할 것이다.

5. 母會社 또는 本店으로 부터 買入한 상품 또는 製品은 母會社에 비치한 장부상의 「子會社(또는 支店)積送品」計定의 殘額을 그대로 사용한다.

6. 子會社 또는 支店의 「母會社(또는 母店)로부터 送金」計定은 母會社 등에 설정된 相對計定인 「子會社에 대한 送金」計定의 殘額을 그대로 사용한다.

7. 外國 子會社의 資本金 計定은 母會社가 당해 子會社의 株式을 取得했을 때 通用하던 換率을 사용하여 번역한다.

8. 外國 子會社의 이월 잉여금은 前年度末의 잉여금 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國內通貨 金額을 그대로 사용한다.

9. 收益에 적용할 換率은 각각의 去來가 일어날 때 通用되던 換率을 사용하는 것이 理想的이나 이것은 實務的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당해기간의 平均換率을 사용한다. 平均換率도 여러가지 方法으로 결정될 수 있다. 每日每日의 換換率을 平均한 것, 12個月의 率을 平均한 것, 不景氣時에 通用되던 換率보다 好景氣時에 通用되던 換率에 重要度를 부여하는 加重平均値를 사용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每月의 販賣量을 加重値로하는 加重平均換率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10. 賣出原價를 除外한 費用은 당해 年度의 加重平均換率을 사용한다.

11. 賣出原價의 번역에는 賣出原價 構成項目에 따라 각기 다른 換率이 적용된다. 賣出原價에 포함되는 期初在庫는 前記 (4)項대로 번역하고 買入計定과 여기서 控除될 買入還出額은 당해 年度中의 加重平均換率을 사용하여 번역한

6) AICP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 43, Chap. 12,

다. 賣出原價에서 除外될 期末在庫는 前記 (1)項의 方式을 적용할 것이다.

12. 〈Reserve〉는 그 性質에 따라 다르다. 流動負債에 속하는 것과 資產의 評價計定의 性質을 띤 것은 그러한 資產과 負債가 期末의 換率로 번역되는 이상 期末의 換率이 적용된다. 그러나 固定資產에 대한 評價計定인 償却充當金累計額에 대하여 당해 固定資產의 取得原價에 대한 償却累計額의 比率을 구하고 이 比率을 固定資產原價에 곱하여 번역 數値를 算出한다. 移延資產의 償却費도 이에 準하여 번역한다.

子會社의 計算表와 期末在庫는 모든 財務諸表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므로 試算表의 各 計定을 위와 같은 方法으로 번역한다면 試算表의 貸借는 一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항목들이 각기 다른 換率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貸借를 一致시키기 위한 調整數値가 번역후의 子會社의 試算表上에 記入되어야 한다. 이 調整數値는 換率變動에 기인한 利得 또는 損失이다.

傳統的인 번역方法은 번역의 目的이 外國의 子會社 또는 支店의 財務報告時에만 적절한 方法이다. 보통 外換會計를 취급하는 문헌이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으나 傳統的인 번역方法은 번역을 엄격히 母會社 또는 持株會社의 觀點에서 보고 있으며 그리하여 번역된 財務諸表를 번역후에 聯結이나 結合등의 다른 用途에 사용할 때만이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傳統的인 번역方法에는 重大한 결함이 있다. 傳統的인 번역方法의 결함을 최초로 지적한 Hepworth 교수는 그의 〈Reporting Foreign Operations〉[7] 에서

① 번역목적을 위하여는 流動項目과 長期項目의 傳統的인 區分을 버리고 貨幣性 項目(monetary items)과 非貨幣性 項目(non-monetary items)으로 일층 現實的인 區分을 할 것.

② 在庫資產의 번역에는 經常換率보다 歷史的 換率을 사용하고 長期負債에 대해서는 歷史的 換率보다 經常換率로 번역하며

③ 外換에서 생기는 利得 또는 損失을 國際企業經營의 全般的인 經營成果의 一部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그에 의하면 貨幣性 項目은 經常換率을 적용하여 번역하고 非貨幣性 項目에는 歷史的 換率을 적용하여 번역한다. 그 이유는 傳統的인 流動·長期·項目의 區分은 在庫資產에 미치는 換率變動의 영향때문에 經營成果를 歪曲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데 파운드貨 對 달라의 換率이 1 : 2.78일때 미국의 母會社가 영국 런던의 子會社에 原價 77,840弗의 상품을 積送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子會社는 이 積品送을 28,000파운드로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期末에

7) S.R. Hepworth, Reporting Foreign Operations, Bureau of Business Research, Univ. of Michigan, 1956, 그리고 이것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연구는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Research Report No. 36, "Management Accounting Problem in Foreign Operation." New York, NAA, 1960.

이 中 절반이 販賣 되지않고 在庫로서 保管되고 있다면 子會社는 그것을 14,000파운드로 報告할 것이다. 그런데 期末의 換率이 2.80이라 한다면 傳統的인 번역方法은 在庫를 39,200弗로 번역하게 될 것이고 이 금액은 在庫의 弗貨 原價인 38,920弗(=77,840弗÷2) 보다 커지게 된다. 이 結果는 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外國 子會社 또는 支店이 그들 所在國의 通貨로 이들이 所在한 지역에서 在庫資產을 구입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만약 換率變動이 在庫資產에 미치는 이와같은 영향을 除去하려 할 때는 물론 母會社가 傳統的인 方法에 의해 번역된 금액을 2次的으로 조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固定負債의 번역에 期末의 換率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引用文[8]이 이를 잘 설명하여 줄 것이다.

「外國의 子會社가 外國通貨로 支給한 負債를 적절한 弗貨로 評價하는 見地에서 보면 外上買入金과 長期負債間에 根本的인 差異點은 없다. 兩者는 다음의 日子에 弗貨로 번역된 外國 貨幣單位의 확정된 數値를 支給할 契約上의 負債를 表示한다……合理的인 근거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期末換率의 적용은 完全한 結果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全的으로 인식한다면 期末換率은 流動負債와 固定負債 兩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새로운 번역方法을 다시 한번 要約하여 쓴다면

1 貨幣性 項目의 번역에는 期末換率을 사용한다. 期末換率이야말로 現實的으로 支給하거나 받을 國內通貨價値를 가장 合理的으로 反映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2 非貨幣性 項目에는 歷史的 換率을 사용한다. 이 項目은 장차 販賣를 통하여 收益으로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 收益이 實現當時의 換率로 번역됨으로써 歷史的 換率로 번역한 이 項目의 國內 通貨價値는 數年에 걸쳐 現實的인 換率에 의한 價値로 회복될 것이다.

3 移延資產과 先給費用 등도 이들이 이미 發生한 原價를 表示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換率變動에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도 非貨幣性 項目과 같이 취급하여 歷史的 換率을 적용하여야 한다.

4 株主持分으로서의 資本은 그 資本이 擴大되었을 때의 換率을 적용하고 잉여금은 그것이 축적되었을 때의 換率을 적용한다. 그런데 잉여금이 蓄積되었을 때의 換率과 配當이 實現되었을 때의 換率의 차이는 당해年度의 損益計定에 借記 또는 貸記되어야 할 것이다.

5 收益·費用은 당해기간의 平均換率로 번역하되, 賣出原價속에 포함되는 在庫資產과 移延費用의 償却額은 歷史的 換率에 의하여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貨幣性 項目과 같이 經常換率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換率이 존재할 때에는 어떠한 換率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가 하는 문제가 있다. 換率에도 先物 및 現物去來·商業어음去來에 각각 적용되는 換率이 있고 또 自

8) S.R. Hepworth, op. cit., p.9.

由市場換率과 公定換率에 차이가 있는가 하면 複數公定換率이 通用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 外貨의 번역이 現實的인 交換과 無關하더라도 또 번역된 諸 項目이 번역대상이 되는 通貨로 받거나 支給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換率을 선택하는 것은 각국의 經濟的 現實과 企業現況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外貨로 表示된 計定을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하고자 하는 計定금액의 經常去來價値를 정당하게 측정하려고 한다면 이에 적용될 換率은 번역될 計定을 설정하고 있는 地域의 現物去來에서 形成되는 自由市場換率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特定國이 당해국의 通貨價値를 對外的으로 高評價하려고 노력하는 때에 정부가 換率을 公定하는 수가 있는데 이때 公定換率과 自由市場換率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輸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채의 決濟에는 公定換率을 사용하여야 하겠으나 外貨가 어떠한 特殊한 泉源에서 획득되었다면 그러한 外貨는 정부의 統制를 받지 아니하는 自由市場換率로 交換될 수 있다. 外國 子會社의 純利益은 그러한 源泉소득의 하나라고 할진대 그러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子會社의 資產·負債·資本등은 自由市場換率로 번역되어도 좋을 것이다.

公定換率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 暗市場換率이 形成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財務諸表를 번역하는데 暗市場換率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暗市場換率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9]

① 暗市場에서 去來되는 外換금액은 상대적으로 보잘것 없는 금액이다.

② 暗市場換率은 性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企業은 外國事業을 실행하는데 부당하거나 非合理的인 方法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計定上에 表示된 外貨금액을 번역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財務諸表에서 사용되는 國語나 計定科目을 外國의 讀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번역하는 문제이다. 각국간에 會計槪念이나 會計方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國語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각기 다를 수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會計는 그것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發展樣相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에 따라 특정한 槪念構造를 낳게 되었다. 각국간의 환경적인 차이점은 會計槪念과 會計實務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會計槪念의 形成과정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巨視經濟學的 構造에서 形成된 것, 微視經濟學的 構造에서 形成된 것, 그리고 獨立科學으로서의 會計學에서 形成된 會計槪念, 會計의 統一化 樣相(uniform accounting)에서 定立된 會計槪念등 다양하다. 국제적으로 現存하는 會計槪念도 차이에 관한 몇가지 實例를 들어본다면 計定科目을 번역하는데도 상당한 곤란이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이다. 예컨대[10] 〈reserve〉와 〈provision〉이

9) H.A. Finney & H.E. Miller, Principles of Accounting, Advanced, fifth edition, p. 520.

라는 用語에 상당한 混亂이 介在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內包하는 의미는 ① 資產評價計定으로 해석하는 것 ② 負債——現實的·偶發的·確定的·推定的 負債를 의미하는 것, ③ 株主請求權의 一部分으로 해석하는 것 ④ 손익계산서의 기간費用을 表示하는 것 등 특별한 설명 또는 駐釋이 없이는 전문가들조차 그 뜻하는 바를 모를 정도이다. 또 〈retained earnings〉이라는 用語도 미국에서는 손익거래에 의해 생긴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지칭하는 것이나 유럽諸國에서는 이를 配當하지 아니할 이익으로 해석하고 〈capital reserve〉로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特記할 것은 각국의 會計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각국의 法令이다. 商法을 위시하여 稅法 등 行政關係法規는 財務諸表의 用語와 計定科目등의 의미를 特定하고 있는데 이에 의거한 財務諸表가 번역을 통하여 이들이 의미하는 바를 적절히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外國의 讀者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稅法에서 경제정책목적으로 特定한 企業에 대하여 各種充當金을 容認하고 있을 때 그러한 充當金은 단순한 번역만으로는 국제적인 會計情報의 傳達機能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會計基準의 統一化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용이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우선 用語의 번역에 混亂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때는 財務諸表의 脚註에서 또는 다른 方法으로 이들 用語가 의미하는 바를 明白히 公示하여야 할 것이다.

Ⅳ. 換率變動損益의 本質

지금까지 外貨로 表示된 計定 또는 財務諸表를 번역하여야 할 具體的인 경우와 번역方法에 따르는 論爭點 그리고 번역에 사용할 換率의 선택문제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財務諸表를 번역할 때에 數個의 각기 다른 換率을 적용함으로써 必然的으로 發生하게 되는 換率變動으로 인한 利得 또는 損失의 本質과 그 處理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換率變動損益이 發生하는 경우는 첫째로 外貨資產을 回收하거나 또는 外貨負債를 辨濟할 때이다.[11] 예컨대 미국의 기업이 영국의 기업으로부터 1000파운드의 商品을 外上으로 買入하고 그때의 파운드貨에 대한 弗貨의換率이 2.80이라면 미국의 기업은 買入計定에 2,800弗을 借記하고 外上買入金計定同額을 貸記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미국의 기업이 이 外上買入金을 파운드貨로 決濟하고 당시의 換率이 2.78이었다면 미국의 기업은 換率變動損益(다

10) AICPA, Professional Accounting in 25 Countries (New York: 1964) Passim.

11) 이하의 설명자료는
H.A. Finney & H.E. Miller, op. cit., pp. 498~522. H.A. Black and others, Accounting in Business Decisions: theory, method and use, 2nd ed., 1967. pp. 627~644.

른 用語라도 좋다)에 20弗을 貸記하게 될 것이다.

換率變動損益이 發生하는 두번째의 경우는 外貨로 表示된 計定 또는 財務諸表를 國內通貨로 번역할 때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外國 子會社 또는 支店의 諸 計定을 聯結目的으로 번역할 때에 計定의 一部에 대하여는 歷史的 換率을 적용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經常換率을 적용한다면 번역후의 財務諸表는 貸借가 均衡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均衡시키는 데 借邊이 부족하다면 損失이 發生한 것이고 反對일 때는 利得이 發生한 것이다.

換率變動損益에 관하여 그 處理方法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意見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들은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外國 子會社 등의 經營成果를 일층 有效하게 판단하기위하여는 換率變動損益의 本質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12]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見解에 의하면 外貨資產의 回收나 債務의 辨濟로부터 생기는 損益은 實現된 損益이며 計定의 번역에서 생기는 損益은 未實現損益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最近 數十年에 걸쳐 外國通貨와의 交換에 관한 不安 乃至 不確實性과 國際事業의 性格變化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2次大戰 이전까지만 하여도 國際經濟의 構造속에서 국가의 財政·金融政策을 수행하는 기초적인 原理는 金本位制의 自動調整機構였다. 金本位制下에서는 國際間에 自由로운 金의 이동을 前提로 하기때문에 換率은 一定한 均衡點으로 復歸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金流出國에서는 deflation경향을 金流入國에서는 Inflation 경향을 가져옴으로써 換率은 소멸점을 中心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上下운동을 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人爲的으로 관리되는 外換政策下에서는 이와같은 金의 이동에 의한 換率의 安定은 바랄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國內通貨의 相對的인 價値低落이 정책적으로 永久化되어 가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 換率은 거의 一方으로만 계속하여 변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換率構造의 不安定性下에서 財務諸表의 번역에서 발생한 損益을 당해기간에 實現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확실히 非現實的인 方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말할 것은 外國事業의 性格變化이다. 1950年代의 中半期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外國事業이라는 것은 대부분 輸出入 形態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國際企業은 종래의 外國事

12) 外國의 經營活動에서 얻은 다음의 두가지 經營成果를 비교하여 보면 그것은 금액상으로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成果가 導出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절대로 동일시 될 수 없다.

Net income from operations	$ 10,000	$ 3,000
Exchange adjustments		
Loss	$ 400	
Gain		$ 3,000
Net income	$ 6,000	$ 6,000

業이라고 하던 輸出入 活動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多數國에 적극적으로 進出하여 生産·販賣活動을 직접 그 지역에서 전개하는 국제적인 경영으로 그 활동무대를 廣域化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國際企業은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外國去來 또는 外國事業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多數國에 所在하는 子會社 또는 支店들을 당해지역에 永久的으로 定着하는 事業으로 보며 國籍企業 全體로서 展開하는 경영활동의 一部分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소위 〈foreign〉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外國의 子會社 또는 支店 등이 所有하고 있는 資産은 이들이 營業을 수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이들이 그 資産을 換價處分하여 母會社 등이 所在하는 국가의 通貨로 交換할 것을 前提로 하지 않는 이상 번역損益을 實現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財務諸表의 번역에서 생기는 損失 또는 利得은 未實現損益이라고 하는 이러한 見解는 상당히 우세하다. 그런데 實務面에서 未實現損益의 처리 方法은 각양각색이다. 먼저 有力한 見解로는 保守主義的 思考에 따라 未實現利得은 貸借對照表에 移延시키고 未實現損失은 당기 損益計算에 反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각컨대, 損益의 決定에서 收益은 保守主義的인 立場을 취하여 實現主義에 의하여 인식한다고 할진대 換率의 有利한 變動에 의하여 發生한 번역利得을 販賣收益과 같이 당기에 實現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이러한 收益의 現實的인 實現基準도 말할 수 없다. 설령 이러한 利得을 實現되었다고 간주하더라도 次期에 換率의 不利한 變動으로 인하여 번역損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니 당해 利得은 여기에 對備하여 次期의 번역損失을 塡補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換率變動으로 인한 번역利得은 이를 充當金으로 처리하여 次期로 移延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未實現損失은 그것이 비록 未實現이라하더라도 이를 당해기간의 損益計算에 反映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前述한 바의 保守主義的 思考를 끝까지 관철하려는데 있는 것 같다. 나아가서 損失이 實現與否를 不問하고 異常的으로 크다면 그리고 특히 그 損失이 通貨의 評價切下와 같은 異常的인 사건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러한 損失은 직접 적립금으로 塡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는 당초에 AICPA가 〈Accounting Problems Arising from Devaluation of Foreign Currency〉를 發表한 바 있고, 그후 이를 Bulletin No.43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13]

「通貨의 評價切下에서 생기는 損失의 가능성은 보통 外國事業의 수행에 고유하게 內在하는 위험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범위의 그리고 未曾有의 규모의 評價切下는 그것이 사업의 순환적인 위험으로서 간주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異常的인 사건의 發端에서 생기는 外換調整이 금액상 중요하기 때문에 損益計算書에 이를 포함시키

13) H.A. Finney & H.E. Miller, op. cit, p.519

는 것이, 誤導되는 推論이 거기에서 나올 그러한 정도로 순이익의 중요성을 손상시킨다면, 이러한 外換調整은 잉여금에 적절히 부과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論理나 實務가 일반적으로 우세한 支持를 받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換率變動에서 생기는 未實現損益은 모두 移延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異說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떠한 損益도 移延되어서는 안된다는 立場을 支持하는 사람들도 있다.[14]

생각컨대, 外國 子會社나 支店에 資產을 換價處分하여 投下資本을 回收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換率變動으로 인한 未實現損益은 이를 貸借對照表에 移延計上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損益計算에 反映하는 것은 마치 物價水騰落하였을 때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現金이나 預金의 價値를 그러한 物價水準에 맞추어 再評價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外國의 投下資本을 조만간 회수할 것을 前提로 한다면 外國 子會社등의 財務諸表의 번역에서 생긴 未實現損益은 이를 당해기간의 損益으로 計上하여도 좋을 것이다. 外國 子會社가 그 所在國에서 영속적으로 存續할 繼續企業인데도 換率變動으로 인한 未實現利得은 이를 移延하고 未實現損失은 이를 費用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論理上 심히 一貫性을 缺하고 있는 極端的인 保守主義的 思考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은 어떠한 方法이 가장 타당하다고 단정하기에는 時機尙早다. 오늘날 各國 정부는 여러가지 外換統制方法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換率變動에서 생기는 未實現損益은 이를 一律的인 方法으로 處理할 것이 아니고 諸 方法의 相對的인 長點을 較量하여 당해 企業의 立場에서 보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方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附記하여 두고자 한다.

V. 結 語

企業의 國際化에 따라 會計와 財務報告도 國際的인 次元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財務諸表가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外國의 利害關係者에게 有效한 會計情報로서 이용되자면 먼저 財務諸表가 他國의 言語와 金額으로 적절히 번역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財務諸表의 번역에는 두가지 번역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歷史的原價會計槪念에 기초를 두고 歷史的 換率을 적용하는 번역方法인데 이것은 어떠한 槪念體系의 會計를 다른 槪念體系의 그것으로 變化시키는 번역方法이다. 또 하나는 經常換率을 적용하여 번역함으로서 원래의 財務諸表가 기초로 하고 있는 會計槪念體系에 아무런 變化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번역方法이다. 그러나 어떠한 번역方法을 擇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번역의 目的이 어디에 있느

14) S.R. Hepworth, op. cit, chap. Ⅲ.

나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번역의 目的이 外國의 子會社의 財務報告目的이라면 歷史的換率과 經常換率을 동시에 적용하여 번역할 것이요, 번역의 目的이 外國의 獨立된 企業의 會計情報提供에 있다면 이때는 經常換率을 적용하여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財務諸表의 計定科目이나 用語을 번역할 때 각국간의 會計概念의 차이로 인하여 당해 計定科目 또는 用語의 해석에 混亂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統一된 會計概念乃至 會計基準이 存在하지 않는 까닭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混亂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特定한 用語를 번역할때에는 그러한 用語에 內包된 진정한 의미가 公示과정에서 어떠한 形態로든 명백히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리고 傳統的인 번역方法을 검토한 바 그것은 非實現的이고 또 많은 결함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한편 Hepworth교수가 제안한 새로운 번역方法은 확실히 타당한 번역方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번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利得 또는 損失의 처리方法에 관하여는 아직 확정적인 結論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財務諸表를 번역하는 目的과 번역당시에 처한 기업現實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利得 또는 損失은 一律的인 처리 方法을 말할 수 없고 換率變動을 초래하는 국제경제의 動向과 각국의 경제現實 그리고 번역결과를 이용하는 기업의 實情에 따라 그 實現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M.T. Wells, "Devaluation and Inflation and ther Effect on Foreign Operations." Accounting,August 1965. pp. 730—735.

G.G. Mueller, "Are Traditional Foreign Exchange Translation Methods Obsolet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summer 1965, pp. 41—46.

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 Accounting Problems in Foreign Operations. N.A.A. Research Report No. 36, 1960, p. 71.

M.O. Binger, "Transl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expressed in foreign currencies." Arthur Young Journal, Jan. 1964. pp. 13—20.

W.L. Furlong, "Minimizing Foreign Exchange Losses." Accounting Review, April 1966, pp. 244—252.

J.R. Higgins, "Foreign Exchange and Internal Audit." Accountant, Feb. 1960. pp. 160—164.

H.H. Oppenheimer, "Reporting undistributable foreign earnings." NewYork Certified Public Accountant, Feb. 1962. pp. 91—106.

S.R. Hepworth, Reporting Foreign Operations. Michigan Business Studies, Vol. Ⅶ, No. 5. Ann Arbor: Univ. of Michign, 1956, p. 211.

G.C. Watt, "Management Accounting problems in Foreign Operations." Proceedings. 1960. Institute on Private Investments Abroad. Albany: Matthew Bender & Co., pp. 493—512.

G.G. Mueller, International Accounting,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1967. pp. 167—202.

H.A. Finney & H.F. Miller, Principles of Accounting, Advanced, 5th edition, pp. 498—512.

〈*Summary*〉

On the Transl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Yung Chu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some problems arising from translating foreign currencies in accounts fo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has increased sharply over the last decades. First,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y is conducted on an ever growing scale. Secondly, coupled with growing international investments, there are increasing institutional activities in international finance.

In these situations, effective international use of accounting as a whole is impossible without some faculty for translating monetary amounts from one national currency to another.

In this sense, this paper is to deal with some problem areas faced to the need of translating foreign currencies in accounts or financial statements.

The contents of this paper will be summarized as follows;

1) To bring up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and the need for translating foreign currencies,

2) To examine the traditional method of translating and to compare this with the modified method by Professor S.R. Hepworth,

3)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gains or losses on foreign exchange translation and to present an opinion with their disposition.

Author: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Kyung Pook University